

‘조선대 미술 70년’ 한눈에 본다

20~30일 개교 70주년 기념전

오지호·천경자 등 교수진 쟁쟁

오승우·황영성 등 6388명 배출

한국화단 ‘조선대 학파’ 형성

동문·교수 320명 매머드 전시회

신진 57명 문화전당 특별전도



서수경 작 ‘The Third Room’

“처음 졸업했을 당시에는 화가들을 한(그림)쟁이라 부르며 비하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사생을 나가면 일부러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갔어요. 여관방에 숨어서 창문 밖 풍경을 그렸을 때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70년이 지났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1회 졸업생 김영태(89) 화백은 70주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조선대 미술인이란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홍익대나 서울대가 더 높다고 인식되지만 당시에는 조선대가 중앙에서도 알아줬다”고 회상했다.

1946년 9월29일 조선대 개교와 함께 개설된 미술대학은 한국미술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교수진도 화려했다. 오지호·김보현, 윤재우, 천경자 등 당시 한국 화단에서 내로라하는 화가들이 참여했다.

당시 김보현 화백은 수업을 할 때마다 “사람부터 대라. 훌륭한 인간 밑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또 대생 등 기초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김 화백도 전시회 때마다 극사실화를 선보이며 출전수범했다. 기본을 중시하는 교육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며 조선대가 굵직한 미술인을 배출하는 밑바탕이 된다.

1949년 첫 졸업생 김영태·나점석을 시작으로 오승우(6회), 진양욱(9회), 박석규(12회), 양영남(13회), 송용·홍진삼(14회), 황영성(15회), 최영훈(18회) 등은 오늘날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남도 미의식에 바탕을 둔 구상회화 계열 ‘조선대 학파’를 형성하며 호남은 물론 한국 화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후배들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손봉채 작가는 19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 최연소작가로 참여했다.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서정민과 서수경이, 2015년에는 이아남 작가가 참여해 조선대 미술대학을 세계에 알렸다.

졸업생은 지난해까지 6388명을 배출했다. 조선대 미술학과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20~30일 동문과 전·현직 교수들이 참가하는 ‘조선대학교 미술 70년’ 대규모 전시를 연다. 이



김영태 작 ‘무제’

번 행사는 조선대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본 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특별전시장에서 여는 ‘Blue wave-파란(波瀾)을 일으키다’ 전으로 나뉜다.

본전시에는 동문, 교수 등 320명 작품이 출품돼 조선대 미술대학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1946년부터 1970년대까지 초창기 작품부터 사회·정치적으로 혼돈 시기였던 1980년대, 1990년대 실험적인 현대미술, 전·현직 교수 작품 등 네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1946~1970) 세션에서는 이른바 조선대 학파 작품을 선보인다. 김보현, 천경자를 비롯해 오지호 등 초창기 교수들에게 배운 동문들 작품과 성과 과정을 보여준다.

1980년에는 인상주의풍 구상회화 계열을 넘어 추상미술과 민중예술 등 새로운 미술세계를 펼쳐보인다. 특히 광주 5·18과 1987년부터

1988년까지 대학개혁운동인 1·8항쟁, 대통령제를 계기로 작업한 작품들이다.

현대미술이 대중화되는 시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광주비엔날레를 기폭제로 전위적인 실험 예술, 조각설치, 미디어아트 등이 주를 이룬다.

명예교수·타 대학 출신 교수 공간에서는 김보현, 조복순, 김영태, 오지호 작품을 전시한다. 미술대학 70년 역사와 한국 미술·디자인 발전을 주도해 온 초창기 교수들이다.

문화전당에서는 2000년 이후 입학한 후속 세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졸업 후 10년 이내 동문 중에서 각 전공주임 교수 추천을 받은 신진작가 57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미술대학 역사와 전시에 참여한 작가 자료를 집대성한 도록을 제작한다. 미술대학이 배출한 동문 주소록과 현황을 실어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문의 062-230-609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펭귄마을에 온 어린왕자’

정강임 개인전…28일까지 ‘양림148’



‘로즈마리’

어린 왕자의 맑은 눈망울을 통해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정강임 작가가 28일까지 양림동 갤러리카페 ‘양림148’에서 ‘펭귄마을에 온 어린왕자’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생텍쥐페리 소설 ‘어린왕자’와 꽃을 소재로 작업한 ‘로즈마리’ 시리즈 등을 선보인다.

작품에 등장하는 어린왕자는 큰 눈이 특징이다. 푸른색으로 빛나는 눈동자에는 별이나 새가 비치고 있다. 특히 분홍, 노랑, 초록 등 화사한 톤을 유지하며 동화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품 ‘로즈마리’, ‘안녕’, ‘기다림’ 등은 마치 순정만화를 보는 듯 꿈 속 풍경이 등장한다. 어린왕자는 여우를 안고 있거나 장미꽃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다. 때로는 꽃에 둘러싸여 관람객을 바라본다.

작가는 어린 왕자를 통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관계에서 느끼는 진정한 사랑과 순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Feeling’, ‘빛색광주, 색에예술의 향연전’ 등 개인전을 7회 가졌다. 지난 1998년부터 미국 하와이 부채그림시화전, 한·독 문화교류초대전, 영호남교류전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672-148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보현 화백 2주기 추모전 12월 30일까지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햇빛은 남자의 꿈’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이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이상향의 세계-자연과 인간’전을 19일부터 12월30일까지 진행한다. 개교 당시 미술과 교수를 맡았던 고(故) 김보현(1917~2014) 화백 2주기 테마기획전으로 3부작 마지막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절제된 감정과 자연주의적 요소들이 발현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후반기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 화백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까지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적 삶과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예술세계 이상향을 만날 수 있다.

후반기 작품들에서는 혼란하게 배열하고 중첩된 화면처리를 보여준 이전 작품보다 절제되고

단순화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훨씬 부드러운 파스텔톤과 점차 화사하고 선명한 원색으로 풍요로운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

1994년작 ‘햇빛은 남자의 꿈’은 양팔을 한껏 벌린 남성이 등장한다. 팔 아래에는 꽃, 물결을 가지런히 배치했다. 우울함이 느껴지던 예전 작품에

비해 미소 짓는 있는 남성을 통해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암사자를 타다’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인간을 통해 긍정적 메시지를 전한다.

작가나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umoa.org)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의 062-230-676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순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400여점 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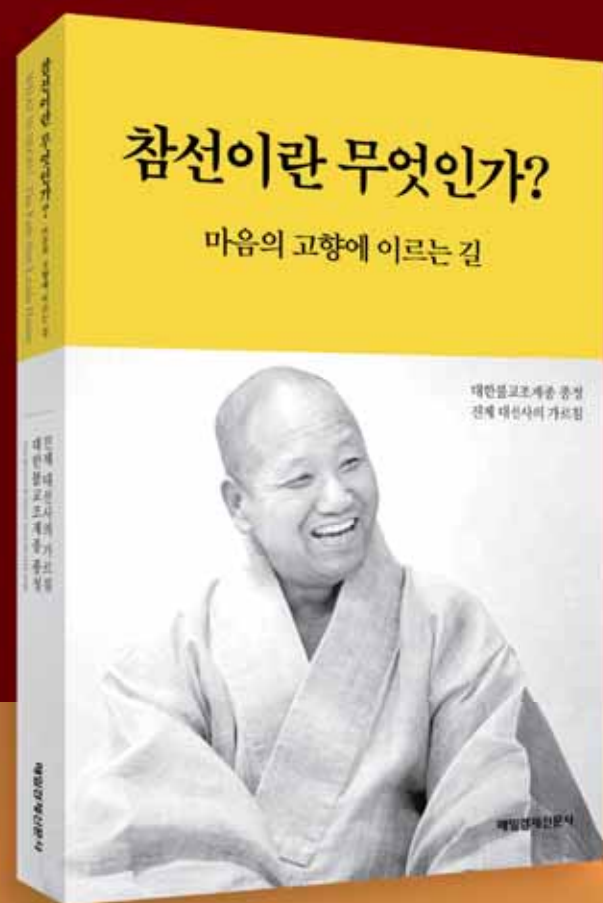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항곡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항곡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승, 현재)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 가격 | 16,000원 |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 해운정사 | 051)746-2256